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도 용기랍니다

용기
 버나드 와버글·그림 | 이혜원 옮김 | 아이터 |
 36쪽 | 값 8,000원





누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쉬를 하면 사람들이 이걸 한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엄마가 이걸 하면 동생이 안 보여요. 무엇일까요? 아이가 나와 특정 단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연예인들이 답을 맞추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문제들입니다. 첫 번째 문제의 답은 '반사회', 두 번째 문제의 답은 '어부바' 랍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시청자들을 텔레비전 앞으로 모이게 하는 건 유명 연예인의 위모도, 화술도 아닙니다. 엉뚱하긴 하나 분명히 '옳은 말씀' 을 하는 어린이들의 순수함이지요.

그렇다면 내일을 위해 맛있는 사탕 하나를 남겨두는 것,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 꽃이 아무리 예뻐도 꺾어 버리지 않는 것, 남몰래 좋아하는 아이에게 줄 발렌타인 선물에 자기 이름을 써서 보내는 것, 질투가 나더라도 싫은 표정을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림책 작가인 버나드 와버는 이를 용기라고 정의합니다. “용기는 곧 씩씩하고 굳센 거지” 라고 말하는 대다수 어른들의 대답과는 다른 엉뚱한 정의지만 결코 틀린 말은 아니지요. 《용기》는 이처럼 일상 속에서 발견되는 용기의 다양한 모습들을 동심으로 포착합니다. 작가는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하고 슈퍼맨처럼 날아다니며 위험에 처한 누군가를 구하는 것만이 용기가 아니라 때론 어느 순간 보조바퀴 없이 자전거를 타보고, 아무도 동생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동생을 지키는 등 일상의 소소한 행동들도 용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때론 서로 격려해 주고, 헤어져야 할 때 “잘 가”라고 말하는 것도 용기가 될 수 있다고 하지요.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쉬운 일부터 아주 어려운 일까지 ‘용기’ 를 갖고 도전해 볼 일들이 다양하게 제시됩니다. 각 문장마다 짙막한 영어 원문을 실어 영어 표현법도 익힐 수 있습니다.

아빠! 이젠 엄마도 나도 울지 않아요

아빠 보내기
 박미라 글 | 최정인 그림 | 시공주니어 | 116쪽 | 값 6,500원

아빠 보내기



전쟁, 죽음, 이별. 어느새 진지한 주제들이 어린이책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보내기》 역시 아빠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담은 책 중 하나지요. 그런데 이 책에서 아빠의 죽음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어린이가 아닙니다. 주인공인 민서는 아빠가 떠난 후 슬픔, 외로움, 허전함 등 제 감정을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다가 차츰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지요. 반면 엄마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빠의 빈자리로 인해 심리적 갈등을 겪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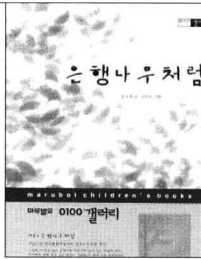
《아빠 보내기》가 다른 죽음 관련 책과 구별되는 점은 어린인인 민서가 아빠의 죽음으로 힘겨워하는 엄마, 즉 어른을 어떻게 위로하고 돕는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특별한 교류 없이 지내는 친지에게 새삼스레 연락하는 것도 뒤틀린 상황에서 민서가 기대는 건 이웃집 할머니입니다. 다행히 할아버지를 하늘로 떠나보낸 경험이 있는 할머니는 민서 엄마의 슬픔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마음의 병을 치유할 방법들을 알고 있지요. 민서는 할머니를 도와 엄마가 가꿀 텃밭을 만들고 엄마에게 동요도 불러주는 등 조금씩 엄마의 병을 치유할 방법을 연구합니다. 마음 한 켠에 아빠의 자리를 비워두고 열심히 남은 삶에 충실하는 민서와 엄마의 모습이 대견스럽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다시 안 와?” 아이들 생각처럼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와만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죽음은 꿈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아빠 보내기》는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남은 사람들이 현실의 삶을 어떻게 이겨내고, 죽은 이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워나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핵가족화 시대에 제2의 가족이나 다름없다는 이웃사촌의 소중함을 이웃집 할머니를 통해 느끼게 해주는 책입니다.



만나고, 키우고, 보내고... 은행나무처럼

은행나무처럼



김소연 글 | 김선남 그림 | 마루벌 | 40쪽 | 값 9,400원

흔히 자연의 이치를 우리 삶에 비유하곤 합니다. 땅에 씨를 뿌린 후 열매를 거둘 때까지의 과정들이 사람이 태어나 성장하고 어른이 될 때까지, 그리고 또 새로운 새싹을 키울 때까지의 과정들과 비슷하기 때문이지요. 《은행나무처럼》은 은행나무의 삶을 닮은 사람의 일생을 나무에 걸쳐놓는 책입니다. 특유의 서정성과 철학성이 돋보이는 이야기, 이 책에 담긴 시를 먼저 읽어봅시다.

“언제나 마주보며 서 있단다, 아빠는 이만큼 다가와 엄마를 안아 주었지, 그러곤 네가 태어난 거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너만 보였지, 하지만 말이야. 네가 물들게 되었을 때 너는 세상 속으로 떠나가게 될 거란다.”

마주보고 사랑을 나누던 부부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성장시킨 후 세상 속으로 보내는 이야기는 시간과 세월의 자취를 좇는 우리 삶의 과정을 종달새의 노래처럼 다정하게 들려줍니다. 특히 “-지, -었단다, -했었어”라는 종결구 덕분에 엄마 종달새의 목소리같은 따스함이 배로 느껴지지요. 이제 그림을 살펴볼까요? 은행나무 암수 두 그루가 마주보고서 있다 푸른 잎을 만들고, 잎이 노랗게 물든 후 바람에 흐드러집니다. 진짜 은행잎을 책 안에 가져다놓은 듯한 그림이 서정성을 극대화시킵니다.

은행나무는 사람처럼 암수 두 그루가 있는 풍매화로 서로 마주보고 있어야 교배가 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서로 마주보며 사랑을 나누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닮은 것이지요. 사람과 삶, 그들이 피우는 사랑 그리고 새로운 생명의 삶까지, 은행나무를 빌어 사람의 인생살이를 보여주는 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난 다리 밑에서 주워 온 천덕꾸러기

나는 주워 온 아이인가봐

기획·글 정유나 | 박지훈 그림 | 김광연 감수 | JDM(주)중앙출판사 | 44쪽 | 값 8,500원



요즘 어린이들도 귀남이, 후남이를 알고 있을까요?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에서 귀한 남자 아이라는 뜻의 귀남이를 동생으로 둔 후남이는 엄마 아빠에게 구박을 받고 집안일만 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공부까지 무조건 귀남이가 우선이지요.

《나는 주워 온 아이인가봐》의 주인공은 후남이와 비슷한 처지입니다. 엄마 아빠는 동생이 잘못해도 나를 혼내고, 나에게만 집안일과 농사일을 시키지요. 그래서 나는 “주워 온 아이인가?” 생각하면서 동네 여기저기를 돌아다녀요. 이 책은 주인공의 발걸음을 따라 시골풍경과 여덟 가지 테마로 된 옛 사람들의 생활유물 정보를 소개합니다. 이야기 읽는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전해주는 것이지요.

어떤 정보들이 있나 살펴볼까요? 오줌 싼 동생 이야기 옆엔 옛 사람들의 화장실 문화가 소개됩니다. 좁은 뒷간을 보니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화장실이 얼마나 편리한지 알 것 같아요. 외양간에 있는 소는 코뚜레와 방울을 달고 주인공을 바라봅니다. 이 밖에 농촌 풍경 속에는 소땀그릇인 구유, 소집인 외양간, 참새를 쫓는 도구 태, 팥개 등 다양한 생활 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남이를 닮은 주인공은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엄마를 찾아달라고 장승에게 조르던 주인공은 “너 좋아하는 달걀 부쳐 줬다”는 엄마의 말 한 마디에 마음이 싹 풀린답니다. 남자를 귀하게 여기던 시절이 있긴 했으나 “난 주워 온 아이인가?”라고 걱정할 필요까진 없어요. 엄마 아빠는 자식 모두를 사랑하거든요. 시골생활을 배경으로 아이들의 보편적인 심리까지 엿보는 이야기입니다. **유니**



김청연 기자

